

# 나주시, 시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 선포

### 푸드플랜 정책포럼 개최...건강 먹거리 보급 등 6가지 목표 제시 공공급식 연중공급 등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 순환체계 개선 최선

나주시는 시민 누구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나주시민 먹거리 기본권'을 선언했다. <사진>

나주시는 지난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강인규 시장과 손준주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나주시 푸드플랜 민·관·거버넌스,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먹거리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의 지속 가능한 생산·소비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날 포럼은 1부 먹거리 선포식, 2부 주제발표, 패널토론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포럼 선포식에서는 강인규 시장과 최원섭 농촌지도자회장(생산자 대표), 백선주 어린이집연합회장(소비자 대표)은 '나주시민 먹거리 기본권' 선언문을 공동 낭독했다.

선언문에는 ▲건강한 먹거리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먹거리체계 구축 ▲먹거리 취약계층, 공공·복지기관 공공급식에 지역 농산물 공급 강화 ▲농업·복지·보건·

환경 등과 연계, 통합한 먹거리 정책 실현 ▲중소 가족농과 여성농에 대한 배려 ▲제도적 기반, 거버넌스 구축 및 마을·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이 함께하는 먹거리 상생 구현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시민 교육, 연대, 협력 강화 등 6가지 추진 목표를 담았다.

포럼에서 패널로 나선 운영성 건국대 교수는 '푸드플랜 추진방향 및 정책설명'이라는 주제로 학교급식, 복지급식, 공공급식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통합적 실행체제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 나영삼 지역파트너플러스 본부장은 공공급식의 연중 공급체계를 위한 생산의 조직화 및 통합물류허브 설치를 강조했다.

패널 토론에는 차흥도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이정삼 농림축산식품부 과장, 국승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 이상만 나주시의원, 김경식 나주시로컬푸드생산자협회 부회장 등 전문가 패널 4인이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중앙정부차원의 지역 푸드플랜 활성화 전략, 소비자 및 일반 시민의 참여를 통한 푸드플랜 저변 확대, 안정적 판로확대와 생산자가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지원 방안의 필요성 등 패널 간의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푸드플랜의 밑그림을 그려왔는데 나이, 성별, 경제·사회적 여건과 관계없이 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섭취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를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나주형 푸드플랜의 성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주시는 지난 1일 농식품부 주관의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공모사업'에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됨에 따라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기획생산, 관계시장 확대 등 푸드플랜 사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나주형 푸드플랜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급식과 로컬푸드 등 '나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국 최초로 먹거리 전담부서인 먹거리계획과를 신설해 4개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나주=손영철 기자 ybson@kwangju.co.kr



나주고 학생들이 토론회에 참여한 작가, 교장선생님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나주고 '제 1회 인문학 아카데미' 독서토론회 김대현 작가와 함께 수준높은 질의 응답 활발

나주고(교장 정행중)는 지난 20일 '제 1회 인문학 아카데미' 독서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독서토론회는 나주고 독서토론 동아리의 박연진, 이경은 학생의 사회로 '법정으로 간 역사'의 공동저자인 김대현 작가가 직접 참여했다. 저자를 통해 세계사의 획기적인 사건과 관련된 역사적 인물의 삶을 새롭게 조명했다.

김대현 작가는 지난 2011년 문화비평지 '플랫폼'에서 '문화비평상'을 수상했고 2012년에는 '실천문학'에서 문화평론 신인상을 받았다. 현재는 '플랫폼', 문예지 '리얼리스트', '살이 보이는 창'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토론회는 김 작가와 학생들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응답 식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책에 나오는 역사적 사건과 인물에 대한 궁금증을 작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역사적 사건과 연계한 현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은 김 작가를 당황케 했다. 학생들은 책의 내용에 국한되지 않고 활발한 질의응답을 함으로써 창의적 사고 전환 능력을 보여줬다. 이는 나주고가 꾸준히 진행한 독서토론회의 결실이다.

나주고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목표로 문학, 역사, 철학 등으로 나눠 질 높은 독서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행중 나주고 교장은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를 확인하는 좋은 기회이자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학교가 학생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답을 찾았다"며 "학내 토론회에 그치지 않고 나주시민들 함께 참여하는 인문학 토론회로 발전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나주천연염색재단, 대만에 한국 슬로패션 전파

'아태섬유공예특별전' 참여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이 대만에서 개최되고 있는 '슬로패션-2019 아시아태평양 섬유공예특별전'에 참여한다.

나주시는 11월 3일까지 대만 타이중시섬유공예박물관에서 열리는 '슬로패션-2019 아시아태평양섬유공예특별전'에 천연염색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슬로패션(Slow-fashion)은 흔히 패스트 패션의 반대 개념으로, 친환경적인 소재와 염색 방법 등을 이용해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패션

을 말한다.

이번 특별전은 아시아태평양지역 7개국을 대표하는 슬로패션 디자이너 작품을 초청해 전시한다.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은 지난 18일 특별전이 개최되고 있는 타이중시섬유공예박물관 2층에서 천연염색제교류전 일환으로 한국 천연염색 작품 전시와 함께 워크숍을 가졌다. <사진>

천연염색제교류전의 공동 주관 기관 대표 자격으로 특별전 개막식에 참석한 김왕식 재단 상임이사는 "한국은 7개국의 슬로패션 대표 디자이너의 작품을 전시하는 행



사에 유일하게 별도의 전시관을 갖고 작품 전시를 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슬로패션이 선도적 위치에 있다는

## 나주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 '첫 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승인따라 2021년 목표 유니세프 인증 추진

나주시가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이어, 지역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살기 좋은 도시 구현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첫 발을 내딛었다.

유니세프(UNICEF)가 공인하는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의미한다.

나주시는 오는 2021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올해 2월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7일 시의회 승인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신청했다.

시는 지난 16일자로 협의회 가입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지자체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상호 교류를 활성화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UN아동권리협약의 4대 권리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보장과 아동친화도시 조성 10가지 원칙을 반영하기 위한 아동권리 실태조사를 통해 아동 관련 정책 발굴 및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이어, 이번 협의회 가입을 통해 2021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지역 아동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권리 증진을 위해 관련 정책을 발굴·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나주문화도시조성센터, 로컬매거진 '나나' 창간

나주문화도시조성지원센터가 색(色)다른 로컬매거진을 발행해 지역 문화지수를 높인다.

나주문화도시조성지원센터(센터장 김경주 동산대학교 교수)는 지난 20일 로컬매거진 '나나: 나와 나주가 만나는 시간' (이하 나나·사진) 창간호를 발행했다.

격월간으로 선보일 '나나'는 나주지역 사람, 장소, 예술, 자연 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이를 또 새롭게 엮어 로컬

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한다.

특히 원도심은 물론 혁신도시까지 세밀히 살펴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나주의 면면을 폭넓게 이야기한다.

창간호에는 '커버스토리' (cover story)를 통해 남파고택과 고택 속 박물관 100년 된 태극기와 나주소반 등 숨겨진 생활 유물을 소개한다.

또 봉황면 죽석리 구석마루로 시간여행을 떠나고 영산포 흥어, 드들강, 노안성당,

세자·공산면 농부, 혁신도시 상리단길 등 나주 곳곳을 들여다 보고 공유한다.

이와 함께 '피플' (people)에서는 나주시청 사이클링 장선희 코치와 강릉청년 노견위시의 나주에서 1년을 살며보고 '나나의 시선'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박종관 위원장 인터뷰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공모사업으로 재탄생한 나주나비레라문화센터를 담았다.

아울러 '에세이' (essay)지면에는 나해철 시인의 '흥어를 묻다'를, '컬처&히스토리' (culture&history)에는 원로작가이자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장인 리명한 선생의 '나주인물일전 김천일 장군' 등 다양한 내용을 신었다.

'나나'는 접근성과 콘텐츠 확대를 위해 유튜브 기반 '나나TV'도 선보일 계획이다. /나주=손영철 기자 ybson@kwangju.co.kr

**제7회 무안 황토갯벌축제**

2019. 6. 14.(금) ~ 6. 16.(일)

해제면 무안황토갯벌랜드 일원

주최·주관: 무안군·무안군축제추진위원회

황토갯벌 1m³의 가치